



뉴스레터

저자 : 네트워크 사무국 - 제주, 메노르카(스페인)

2013년 8월 14일자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3차회의 개최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3차 회의가 지난 6월 3일부터 6일까지 에스토니아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관계자 40명 이상이 참석하였고 22 건의 관련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의 성과는 섬연안 네트워크가, 비록 성숙단계에 도달하기에는 갈 길이 멀지만, 성공적으로 성장의 가도에 진입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이 히우마(Hiiumaa)섬과 살레마(Salemaa)섬 그리고 몇몇 작은 섬과 주위 바다로 구성된 에스토니아 군도(Estonian Archipelago) BR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토마스 코코브킨(Toomas Kokovkin)박사를 포함하여 많은 에스토니아 관계자 분들 덕분에 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Miguel Glüsener-Godt의 매끄럽고 실속 있는 발표회 진행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따름이다.



22개의 발표는 -성명(소속 BR, 국가)의 양식에 따라- 아래에 열거한 발표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Toomas Kokovkin(서에스토니아 군도, 에스토니아), 천영수(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 Sergi Mari Pons(메노르카, 스페인), Antonio Abreu(프린시페, 상투메 프린시페), Romeo B. Dorado(팔라완, 필리핀), Takahiro Okano(야쿠시마 섬, 일본), Houcai Cai et a.(난지섬, 중국), 김경민(구월산, 북한), 제종길(신안다도해, 대한민국), Le Than Tuyen

(깃바섬, 베트남), Mario E. Gálvez(후안 페르난데스 제도, 칠레), Carlos Ramón Gordínez(캘리포니아만 섬 BR, 멕시코), Antonio Maynard(세인트 메리스 BR, 세인트 키츠와 네비스), Clayton Ferreira Lino(마타 아트란티카, 브라질), Everton Hannam(포틀랜드 만, 자메이카), Martine Elizabeth(라셀레, 아이티), Katja Bonnevier(군도 주위 바다, 핀란드), Fabio Costa Pereira(산타나 마데이라, 포르투갈), Juli Caujape(그란 카나리아 섬, 스페인), Antonio Marino(라팔마, 스페인), Aguilino Miguélez López(란사로테 섬, 스페인), Micheel Angel Hernández(이예로 섬, 스페인). 회의가 끝나고 한 달 넘게 지난 지금, 첨부된 보고서와 사진을 보며 의미 있었던 기억을 되살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7월말까지 자신들의 발표 자료를 영어로 기술하기 위해 지금 고생하고 있을 발표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제25차 MAB 국제조정이사회

인간과 생물권 계획 국제조정이사회(MAB-ICC)가 2013년 5월 27일 ~30일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렸다. 6번 안전인 “인간과 생물권 계획에 따른, 회원국들과 지역별, 주제별 네트워크의 활동에 관한 보고”에서, 제주생물권보전지역의 고길림 팀장은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활동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메노르카에서 열린 1차 네트워크 회의와 제주에서 열린 2차 네트워크 회의 때 거둔 핵심결과들을 간략히 보고하고, 에스토니아에서의 3차 회의가 개최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래와 같이 두 네트워크 사무국의 활동성과를 짧게 소개하였다.

네트워크를 위해 메노르카에서 유네스코에 기부할 2013년 예산은 € 40,000이다. 이들은 또한 연구와 협동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경비로 € 30,000을 할당하였다.

2012년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의 설립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유네스코와 합의하였고, 이미 첫째 1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 기금은 유네스코와 함께 세미나, 훈련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그룹의 활동 등을

지원하는 데에 쓰이고,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들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쓰일 것이다.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협력

국내 5곳의 생물권보전지역의 워크숍이 MAB한국위원회 주최 및 후원 하에 2013년 6월 27일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에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팀 사무실과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사무국이 위치해 있다. 모든 참가자들은 공동 관심사에 관한 열띤 토론 후 다음날 숲오름과 돈내코 현장체험을 실시하였다.

워크숍에서 토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25차 MAB 국제조정이사회 의결사항의 준수방안 모색
- 2)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운영에 관한 현안 주제
- 3)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결성

우선, 제25차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김은영 과학팀장이 소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토론주제였던 출구전략(생물권보전지역 자격유지에 관한 규약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의 퇴출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후 각각의 생물권보전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 대해 발표하였다.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이 우려와



토론의 초점이 되었다.

설악산은 암석 봉우리, 깨끗한 계곡 물을 비롯하여 무성한 초목과 풍부한 상록수, 낙엽나무 등이 어우러져 이루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 덕분에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

산이다. 이미 국립공원이었던 1992년에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 무난히 가입하였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지역의 거의 전부가 핵심지역이나 완충지역이었으며, 전이지역은 거의 없었다. 등재된 1992년 당시에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개념이 보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균형을 목표로 하는 세비야 전략이 나오면서 전이지역의 부족 문제가 설악산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올해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30주년을 기념해야 할 때에, MAB 국제조정이사회로부터 전이지역을 확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 권유라는 것은 단지 완곡한 표현일 뿐이며, 지정한 시간까지 확대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설악산은 제명될 수 있다는 명령이나 다름이 없다. 엄청난 데 덮친 격으로 이곳은 중소도시를 포함하여 많은 시읍면에 둘러싸여 있다.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팀은 국립공원 소속 관리자들이어서 이웃 시읍면들을 설득시킬 만한 권한이나 수단이 없다.

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도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기는 힘들었지만, 담당 관리자들에게 많은 조언과 용기를 준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 향후 그들의 노력이 생물권보전지역 잔류라는 결실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E-mail : yschun47@gmail.com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사무국)